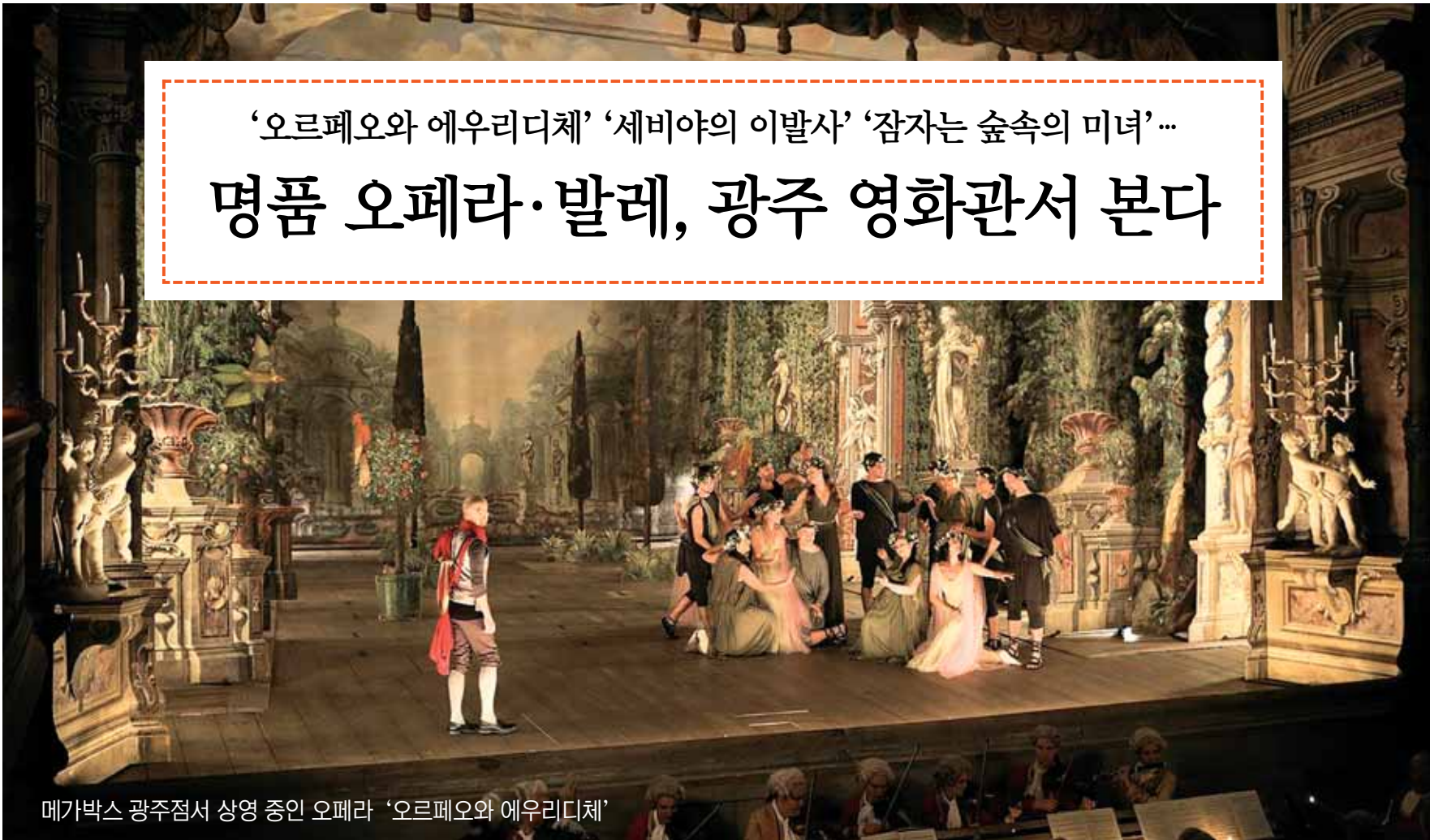


##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세비아의 이발사’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명품 오페라·발레, 광주 영화관서 본다



메가박스 광주점서 상영 중인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체를 다시 잃은 오르페오가 유명한 아리아 ‘에우리디체 없이 어찌 한단 말인가’를 부른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오르페오의 절절한 멜로디는 깊은 울림을 준다.

글룩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공연 장소는 세계문화유산인 체코의 체스키 크룸로프 성. 300년전 그대로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바로크 극장 무대를 비롯해, 성 곳곳에서 전개되는 오페라는 인상적이었다.

메가박스 광주점에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관람했다. 커다란 화면과 음향, 가수의 표정부터 무대 곳곳까지 생생히 잡아내는 카메라를 덕에 현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한글 자막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영화관에서 유명 오페라 등 공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다. 메가박스에 이어 올해부터 롯데시네마도 오페라·발레 상영에 뛰어들었다. 또 예술의 전당은 ‘콘텐츠 영상화 사업’(SAC on screen)’을 올해도 이어간다.

선두주자는 메가박스다. 지난 2009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라보엠’을 시작으로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상영했던 메가박스는 지난 2013년부터는 지역으로 상영관을 확대했다. 144석 규모로 위성중계 시설 등을 갖춘 메가박스 광주점은 베를린 필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주 2회 발레와 오페라 작품을 상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라 트라비아타’,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고집쟁이 딸’, ‘마술피리’, ‘일 트로바토레’, ‘월리엄 텔’, 라이프치히

메가박스 광주점 잘츠부르크 축제 등 생중계  
롯데시네마 수원점서 매주 토 오후 2시 상영  
예술의 전당 지역 문예회관에서 ‘지젤’ 등 계획



롯데시네마 수원점에서 상영되는 ‘세비아의 이발사’

발레단의 ‘찰리 채플린’ 등 20여편을 상영했다.

2015년 시즌은 최고 인기프로인 빈 필 하모닉과 베를린필하모니 신년음악회를 생중계하며 막을 열었고 현재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상영 중이다. 글룩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당시의 오페라 무대를 재현해낸 작품으로 아름다운 미성으로 주목받는 카운터 테너 베준 메타가 오르페오를 맡았다.

올해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중

계 등 다양한 작품이 준비돼 있다.

롯데시네마도 2월부터 오페라·발레 상영에 뛰어들었다. 롯데시네마는 파리 국립오페라와 영국국립오페라 작품을 선사한다. 광주에서는 수원점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상영된다.

첫 작품은 지난해 파리국립오페라가 공연한 로시니의 ‘세비아의 이발사’다. 이탈리아 출신 명지휘자 카를로 몬타나로가 지휘하고 다미아노 미키엘레토가 연출을 맡았다. 유명한 오페라 서곡부터 ‘방금 들은 그 목소리’, ‘나는 이 마을의

만능 재주꾼’ 등의 아리아를 만날 수 있다.

파리국립오페라의 작품으로는 푸치니의 ‘토스카’, 모차르트의 ‘후궁탈출’과 ‘돈 조반니’, 구노의 ‘파우스트’ 등 5편이 상영된다. 발레 작품으로는 ‘파리 오페라 갈라쇼’ ‘마농’을 만날 수 있다. 영국국립오페라의 작품은 베를리오즈의 ‘벤베누토 첼리니’ 푸치니의 ‘라 트라비아타’, 아서 설리번의 ‘펠잔스의 해적’, 비제의 ‘카르멘’, 브리튼의 ‘피터 그라임스’ 등 5편의 오페라가 상영될 예정이다.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콘텐츠 영상화 사업’을 시작했다. 오페라, 콘서트, 발레, 클래식 등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르는 다양한 공연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많은 이들이 명품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CGV와 여수예술마루 등에서 예술의 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현재 영상으로 제작된 작품은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유니버설 발레단의 ‘지젤’,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이었던 연극 ‘메피스토’, 국립무용단의 현대무용 ‘증발’,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5번’과 ‘피아노협주곡 5번’으로 구성된 ‘Sprit of Beethoven’ 등이다. 올해 공연 예정인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와 국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도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영광문화회관, 순천문화회관 등에서 상영회가 열렸으며 올해도 지역 문예회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영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춘면불각효’

〈봄 잠에 날이 새는 줄 모른다〉

의재미술관 4월까지 허백련·허행면 작품 36점 전시



의재 작 ‘위진팔황’

지난 1월 휴관에 들어갔던 무등산 자락 의재미술관이 봄을 재촉하는 작품들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의재미술관은 4월24일까지 ‘춘면불각효(春眠不覺曉)’를 주제로 2015 소장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의재 허백련 선생 작품 25점과 목재 허행면 선생 작품 11점 등 모두 36점이 전시된다. 목재 선생은 의재 선생의 동생이다.

‘춘면불각효’는 ‘봄 잠에 날이 새는 줄 모른다’라는 뜻으로 분위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을 비유해 쓰이는 말이다.

바위 틈을 뚫고 나와 핀 붉은 꽃의 자태가 인상적인 의재 선생의 ‘기석수련’, 많은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다투는 목재 선생의 ‘군방쟁염’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전시에는 의재 선생이 말년에 그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



목재 작 ‘군방쟁염’

인 작품이 ‘위진팔황’이다. ‘위염이 온 세상에 진동하다’라는 작품의 제목처럼 바위에 걸터앉은 독수리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출렁이는 파도와 대조적으로 중앙으로 뻗어있는 소나무의 자태가 인상적이다. 문의 062-222-304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섬지역에 연극 등 예술강사 300명 파견

전남문화재단·도교육청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섬 등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연극 등 7개 분야 예술강사 300명을 파견한다.

전남문화예술재단에 9월 “연극·영화·무용·사진·디자인·공예·만화·애니메이션 7개 분야 예술강사 300명을 전남 도내 22개 시·군 초·중·고교 511곳에 파견해 오는 3월부터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남 예술강사들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오는 12~13일 이틀간 무안군 봉

탄면 약실행복마을에서 예술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2015년 신규 예술강사 워크숍’을 갖는다.

재단은 지난 2011년 339개교에 예술강사 246명을 파견한 뒤 ▲2012년 239개교, 260명 ▲2013년 599개교, 266명 ▲2014년 501개교, 279명을 파견하는 등 지원대상 학교 및 예술강사 파견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

한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교 문화예술 교육활성화를 위해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5회 연속 선정**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